

# “2010년 종합건설업체 수익성 크게 악화” 일본, 한국 건설기술경력관리제도 관심

### 전년대비 총자산 2.3%, 매출액 4.7%, 영업이익 8.2% 각각 하락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상규)가 발표한 전국 종합건설업체의 2010년도 재무제표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동산경기 침체 및 금융환경 악화로 성장성 및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부동산경기 침체와 금융조달 애로 증가로 성장성 및 수익성이 전년도에 비해 악화되었다.

외형상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개발사업 축소 및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강화에 따른 부채 감소, 자산규모가 큰 기업업체의 경영성과 호전, 주가상승 등에 의한 배당금·지분법 이익 증가 등 건설경기 외적인 요

인들에 의해 부채비율이 하락하는 등 마치 재무구조가 개선된 듯한 착시현상을 보였다. 안정성 지표를 살펴보면 부채비율은 171.68%에서 145.12%로, 차입금의존도는 23.10%에서 22.12%로 전년에 비해 각각 26.56%p, 0.98%p 하락한 반면, 유동비율은 130.13%에서 132.81%로 2.68%p 상승하였다.

부채비율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예금은행 건설업 대출비중 2009년(8.0%)→2010년(6.9%))한데다, 건설업체도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을 축소함에 따라 부채가 감소(-8.4%)한 반면에, 일부 업체의 증자·출자 확대, 주가상승에 따른 배

당금 및 자본법 이익 증가 등의 이유로 자기자본이 증가(8.3%)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상시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한 업체규모별로 살펴보면, 주택주력업체가 속해있는 중규모 업체의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 측면을 살펴보면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08%에서 4.89%로,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은 2.93배에서 2.68배로 전년에 비해 각각 0.19%p, 0.25배 하락하여 최저가 및 실적공시비 확대,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의 상승 등으로 수익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은

0.79%에서 2.61%로 전년에 비해 1.82%p 상승하였다.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 평균 비율은 3.44%에서 0.89%p 상승한 4.33%를 기록하여, 매출액 감소 등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해외플랜트 시장 진출 등에 대비하여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개발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기술개발투자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된 업체별 경영상태 및 평균비율은 7.1일부터 증명발급 된다. 또한, 종합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은 향후 1년간 공공공사의 입찰시 업체별 평가기준으로 활용되며, 적용일자는 각 발주기관별로 정할 수 있다.

### 일본 JICE, CIEC 우리 협회 방문



한국의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일본 국토기술연구원 관계자들이 협회를 방문 협의를 나누고 있다.

우리의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제도가 각국으로부터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최승호)는 지난 6월 1일 일본 국토기술연구원(Jap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연구진들이 방한하여 6월 21일에도 건설기술

자센터(Construction Industry Engineers Center) 관련 인사들이 방문하여 우리의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제도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하고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그동안 호주, 대만, 탄자니아, 페루 등에서도 우리나라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제도에 대한 문의가 잇따랐으나, 단일 국가에

서 비슷한 시기에 복수의 관련기관이 협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력관리제도가 선진화 되어 있다는 방증으로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은 실질적인 경력관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정비 중에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일본 국토기술연구원에서는 타나베 수석연구원 등 3명의 연구진이 참석했으며, 건설기술자센터 히로시미타니 이사장을 포함한 4명의 전문가가 협회를 찾았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서정필 부부장 및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 등이 회의에 참석해 환담을 나눴다. 일본 국토기술연구원 측에서는 한국의 경력관리제도를 일본의 관련정책수립에 참고하고 싶다는데, 등록절차, 정정절차, 정보 입력의 주체, 부정행위 발생에 대한 대응절차 및 방지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문의를 했다.

## 한라건설, '서울숲 한라 시그마밸리 II' 분양



최근 강남의 압구정동과 성수대교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성수동 일대가 최첨단 업무단지인 '성동테크 노벨리'로 거듭나고 있는 가운데

남의 임대료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를 마련할 수 있는 비즈니스센터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한라건설(대표 : 정무현)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와 함께 성수동 서울숲 인근에 연면적 20,799㎡, 대지면적 2,592㎡에 지하 5층 ~ 지상 13층 규모의 비즈니스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서울숲 한라 시그마밸리 II' (www.halla-sigma.com)를 8월 초부터 분양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강남 코앞, 성수 맨얼'이라는 슬로건으로 분양 하는 한라건설의 '서울숲 한라 시그마밸리 II'는 이

마트 본사가 위치한 성수동 지식산업단지의 초입인 성수동2가 333-15번지에 위치한 입지가 장점이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서울숲과 5분 거리에 있는 한강고수부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울숲 한라 시그마밸리 II'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이 5분 거리에 2012년 6월에 들어설 분당선 서울숲역(가칭)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도 뛰어나 사무로 사용하기에도 손색이 없다.

한라건설 건축영업부의 안승호 부장은 "서울숲 한라 시그마밸리 II'는 분양가가 아직 미정이나 3.3㎡에 950만원대인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860만원대 전후로 책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2011년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71,360호

### 전월대비 872호 감소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지난 4일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공개하였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71,360호로, 전월(72,232호) 대비 872호 감소하여 12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수도권은 기존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경기·인천지역 신규 미분양(3,927호)이 발생하면서

전월(25,008호) 대비 2,025호 증가한 27,033호로 5개월만에 증가했으며, 지방은 분양가 인하 등 업계 자구노력과 주택거래 증가 영향으로 전월(47,224호) 대비 2,897호 감소한 44,327호로 나타났다. 2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40,005호) 대비 987호(수도권+190호, 지방 Δ1,177호) 감소한 39,018호(수도권 9,251호, 지방29,767호)로, 전체 미

분양의 55% 수준이며, 85㎡ 초과 중대형은 45,604호(수도권 17,786호, 지방 27,818호)로 전월(46,617호) 대비 1,013호(수도권 +84호, 지방 Δ1,097호) 감소했으나, 전체 미분양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누리(http://stat.mltm.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택협회, 「한·베트남 부동산교류협력회의」 통해 우호증진

한국주택협회 대표단(단장 : 권오열 상근부회장)은 지난달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간 베트남 부동산협회(단장 : 응웬 쩌남 회장(현대건설부차관))를 방문하여 「2011 한-베트남 부동산교류협력회의」를 가졌다.

지난 6월 29일 본회의에서 권오열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높은 기술력과 양질의 서비스로 세계건설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건설업체들은 베트남에서도 신도시 개발, 도로, 호텔, 발전소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를 더욱 공고히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부동산협회 응웬 쩌남 회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베트남 부동산시장이 세계 금융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국측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부

동산관련 금융정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베트남 부동산시장에 한국기업의 많은 투자와 진출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본 교류협력회의에서 한국측은 '한국부동산관련 금융정책'에 대해, 베트남측에서는 '베트남부동산 시장 현황'과 '외국인의 부동산시장 투자현황'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양국의 주택 및 부동산에 대한 정보 교환 등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양국 간의 우호증진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현대건설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지난 8일 종로구 계동 소재 현대건설 별관 8층 비전홀에서 미래형 원전 개발사업 및 연구소 수출사업 등을 위한 상호협력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과 정연호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공동 연구·인력 교류·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학술 및 정보 교류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건설한 이래 국내 운영 중인 21기(총발전량 18,716MW) 중에서 61%인 13기(11,629MW)를 건설했으며, 또한 국내 원전의 첫 해외진출 쾌거를 일군 UAE 원전 및 신울진 원전 1·2호기 등 현재 9기에 달하는 원전을 동시에 시공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 연구개발 기관으로서 원자력 기술 자립과 기술고도화를 바탕으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핵심 원전 기술 개발과 원자력 수출 산업화를 통해 세계 원자력 R&D를 선도하고 있다.

### 현대건설, 원자력연구원과 상호협력협약 체결

현대건설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지난 8일 종로구 계동 소재 현대건설 별관 8층 비전홀에서 미래형 원전 개발사업 및 연구소 수출사업 등을 위한 상호협력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과 정연호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공동 연구·인력 교류·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학술 및 정보 교류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특히 초고온가스소(VHTR: Very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개발과 이를 이용한 원자력 수소 생산·소듐냉각고속로(SFR: Sodium-cooled Fast Reactor) 개발·연구용 원자로 개발, 건설·기타 원자력분야 기술 개발 및 해외 시장 진출 등의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우리나라의 첫 원자

## 오천만의 농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희망으로 넘치는 농촌을 보고 싶어합니다  
농협이 변함없이 도시와 농촌을 이어가는 이유, 오천만 모두에게 더 큰 희망을 드리게 위해서입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